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참스승’인 수험생 여러분의 ‘참스승’이 되고 싶은 K-면도날 팀의 ‘강트’입니다. 2024학년도 도덕·윤리 제1차 시험의 예상 정답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본 정답은 예상 정답이며 평가원이 제공하는 완벽한 정답이 아님을 고지 드립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수험생활과 영광스런 합격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도덕윤리 제차 시험	2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항 1. 교과 교육론.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초월’, ㉡에 해당하는 용어는 ‘과정·기능’

### 문항 2. 정치사회 사상. 현대 사상이 메킨타이어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실천’, ㉡에 해당하는 용어는 ‘전통’

- 단순히 모든 종류의 활동이 ‘실천’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목 농기, 축구공을 숙련되게 던지는 것, 벽돌 쌓기, 순무를 심는 것 등에서는 대개 어떠한 행위가 다른 행위에 비해 더욱 ‘탁월성(excellence)’을 지니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행위가 다른 행위에 비해 더 ‘좋은(good)’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자는 단순히 개별 행위를 통해 다른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할 뿐, 그 행위 자체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서양 장기, 축구 경기, 건축, 농사 등에서는 시대와 공동체가 그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분명한 척도가 존재한다. 행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척도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행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천’이란 행위가 다른 외재적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된 선을 실현하기 위해 탁월성의 척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위의 체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 덕은 인간의 정합적이고 복합적인 활동형식인 ‘실천’을 바탕으로 의미를 지닌다. 각각의 실천에 내재된 선(good)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선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덕이 무엇인지도 달라진다. 실천은 선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종의 ‘이야기’를 형성한다. 이야기가 지닌 설화적 질서를 통해 실천을 구성하는 각각의 활동은 이해 가능한 것으로서 통일성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축적되어 한 문화의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 선을 성취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낳은 성공과 실패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날 문화에서 제시되는 덕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이다.

### 문항 3. 서양 철학. 윤리이론 구분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윤리적 보편주의’, ㉡에 해당하는 용어는 ‘규범 윤리적 상대주의’

- 윤리 객관주의와 윤리 보편주의
- ① 윤리 객관주의 : 모든 사회나 환경에 타당한 객관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는 입장, 객관적 검증과 비교 가능
- ② 윤리 보편주의 : 도덕 원리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 기술적 상대주의와 규범적 상대주의
- ① 기술 윤리적 상대주의 : 사회집단마다 상이한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
- ② 규범 윤리적 상대주의 : 기술적 상대주의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인 도덕 기준(옳거나 그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 문항 4. 서양 철학. 근대 사상이 벤담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의무’, ㉡에 해당하는 용어는 ‘유용성(최대다수 최대 행복)’

### 문항 5. 교과 교육론

- ㉠에 해당하는 용어는 '가치문제의 확인과 명료화', ㉡에 해당하는 용어는 '가치원리 검사'
- 교사가 활용하는 검사의 명칭은 '포함관계 검사'이다. '포함관계 검사'는 판단에 사용된 가치원리가 상위의 가치원리로부터 타당하게 연역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문항 6. 교과 교육론.**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기 생존(보존)', ㉡에 해당하는 용어는 '관여 불안'
- ㉢에 나타나는 내적 갈등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즉 타인에 대한 책임감 사이의 갈등이다.
- ㉣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여기 정향이면서 매 순간 충만한 정서적 존재성과 반응성을 강조하는 관여 평온과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추상화 능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정서적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 공동체적 상상이 결합된 일종의 도덕적 지혜인 마음 챙김 도덕이다'이다.

**문항 7. 한국 철학**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정', ㉡에 해당하는 용어는 '의'
- 음에 의하면, 성이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경향성인 마음의 기호이다. 인간은 기호의 경향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하여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데 감춰려 성을 내재해 있는 선한 하늘의 이치로 보게 되면, 하늘의 이치 보존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인 도덕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어가려는 인간의 자율적 활동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음이 ㉢과 같이 말한 이유는,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주지권을 발휘하여 선하게 혹은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음은 인간의 공과 죄는 마음의 자주지권이 활용된 자율적 활동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문항 8. 동양 철학**

- ㉠에 해당하는 내용은 '현상계의 사물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 우주의 연기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다.
- '진어문'과 '생멸문'은 서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것도 아닌 관계로 원융회통하여 일심을 이룬다.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여래장', ㉢에 해당하는 용어는 '화쟁'

**문항 9. 서양 철학. 근대 사상이 흠**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정의', ㉡에 해당하는 용어는 '공통의 관점'
- 이성(정념)으로부터 도출된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정보나 수단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정념에 동반되는 신념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밝혀서 정념을 고무하거나 방향을 결정한다.

- 흠은 정의란 인간의 욕망을 모두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재화와 인간의 이기심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발명품이라고 본다. 요컨대 정의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요구되는 인위적인 발명품이다. 만약 재화의 부족과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정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흠은 이성의 역할은 정념으로부터 도출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정념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혹은 지식은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거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증진될 수 있는 목적이나 목표에 대하여 아무런 욕구도 갖고 있지 않다면, 이성이 제공하는 정보나 지식은 우리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흠은 이성(정념)에 동반되는 신념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밝혀서 정념에 봉사한다고 말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경우 이성이 관여하는 것은 정념 자체가 아니라 정념이 근거한 신념이라는 것이다. 즉, 이성은 정념에 동반되는 신념들의 진실성을 파악하여 정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정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정념과 대립할 수는 없다.

**문항 10. 서양 철학. 고대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

- ㉠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지', ㉡에 해당하는 용어는 '감각적인 앎' 또는 '의견'
- ㉢은 지나치거나 모자란 나쁜 욕망을 지닌 사람인 반면, ㉣은 그러한 욕망을 지니지 않는 사람이다.

- ㉔은 참된 이성적 숙고에 따라 마땅히 즐겨야 할 육체적 쾌락은 즐기고 피해야 할 육체적 쾌락은 피할 줄 아는 사람인 반면, ㉕은 마땅히 즐기고 피해야 할 육체적 쾌락이 무엇인지 몰라 마땅히 피해야 할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거나 마땅히 즐겨야 할 육체적 쾌락을 회피하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 없음'과 '무절제' 사이의 핵심적 차이를 '합리적 선택'에서 찾는다. 무절제한 사람의 과도한 쾌락 추구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즉, 무절제한 사람은 쾌락의 과도한 추구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제력 없는 사람은 과도한 쾌락을 좋은 것으로 여겨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이성이 알려 주는 올바른 행위의 이치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성급함이 나 마음 약함으로 인해 그러한 이치에 따라 행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문항 11. 정치사회 사상. 현대 사상가 노직, 왈처, 롤스**

- ㉔에 해당하는 용어는 '교정', ㉕에 해당하는 용어는 '복합평등'
- ㉔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이고, ㉕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이다.

-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첫 번째 경우는 '덜 광범위한 자유'이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할 때 허용된다. 두 번째 경우는 '덜 평등한 자유'이다. 이는 사회의 어떤 계층의 사람이 다른 계층의 사람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경우로,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허용된다.
- 노직의 세 가지 정의의 원칙
  - ① 최초 획득에서의 정의의 원칙 : 현재의 소유물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소유를 발생시킨 최초 획득이 정당해야 한다. 노직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주장에 근거하여 자연적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는 경우 노동의 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때 최초 획득의 정당성은 자연적 대상물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좋은 질의 것들이 충분한 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아 있어야 하고, 자신의 소유로 인해 타인의 상황이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로크의 단서를 유효하게 만족시켜야 한다. 즉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인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유물을 획득한 경우의 소유만이 정당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 ②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 : 정당하게 획득된 소유물은 소유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물은 그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이전한 경우에만 나는 정당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능과 노동력의 산물은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이다.
  - ③ 부정의에 대한 교정의 원칙 : 교정의 원칙은 과거의 획득과 이전에 있어서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원칙으로, 소유권의 형성에 있어서 획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부정함이 있었다면 그 부정함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났을 정당한 소유의 상황으로 현재의 소유 상태를 교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원칙이다.
- 왈처의 복합평등이란 사회적 가치의 자율적 분배로 인해 생겨나는 독점은 허용하나 지배는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평등을 말한다. 즉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로 인해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합평등 체제(사회)란 사회적 가치가 자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회적 가치의 독점과 그로 인한 불평등은 허용되되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 사회이다. 독점과 그로 인한 불평등은 복합 평등 체제에서는 부정의 하지 않으며, 부정의한 것은 '지배'이다.

**문항 12. 통일 교육론**

- ㉔에 해당하는 용어는 '민족대단결', ㉕에 해당하는 용어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 특수관계란 남북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 ㉕은 '적대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정치적 결단을 통해 외형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면 진정한 통일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덕윤리 제차 시험	3교시 전공 B	11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문항 1. 동양 철학.**

- ㉠에 해당하는 용어는 '도성제', ㉡에 해당하는 용어는 '보시 바라밀'

**문항 2. 정치사회 사상.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과 왈처의 '정의전쟁'**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악의 평범성', ㉡에 해당하는 용어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

<p>○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 독일계 미국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1963년 저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고 아렌트는 주장했다. 아이히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신의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악은 언제나 생겨날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일명 '예스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p> <p>○ 왈처의 정의 전쟁</p> <p>① 전쟁 개시의 정당성 : 전쟁을 개시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인권 침해로 인한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 등과 같이 인간 존엄성과 국제 정의를 훼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쟁 외에는 다른 해결 방안이 없어야 한다.</p> <p>② 전쟁에서의(전쟁 과정) 정당성 : 전시에도 민간인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와 같은 교전 당사국과 참전 군인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 있다.</p>
---

**문항 3. 교과 교육론**

- ㉠에 해당하는 용어는 '공공선', ㉡에 해당하는 용어는 '가역성'
- 공동체의 덕은 각 공동체의 특수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선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화 가능한 덕은 존재하기 어렵다.
- 을에 의하면, 같은 상이한 지식 내용과 사고 구조를 지닌 인습 영역과 도덕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들을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단계라는 하나의 전체 구조 속에 통합하고 있다.

**문항 4. 교과 교육론.**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사회', ㉡에 해당하는 용어는 '권위'
- 자율성이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도덕 규칙의 본질과 기능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 들여 도덕 규칙을 실천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도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 협동적 혹은 자율적 단계에서 아동들은 규칙을 존중될 만한 가치를 중심으로 상호 합의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구성되고 변경될 수 있는 자율적 합의 사항으로 본다.

**문항 5. 교과 교육론.**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기통합', ㉡에 해당하는 용어는 '균형'
- 자기통합의 결과로 자신의 중심 가치와 자아가 일체가 되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면, 자신의 중심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기 일관성으로 인해 자신의 중심 가치와 모순되는 부정적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을은 도덕적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도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도덕적 이탈 행위를 허용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 정체성의 소유 여부를 도덕적 이탈 행위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는 갑의 입장은 완전한 도덕성이란 허구적 가정에 기반한 잘못된 입장이다.

**문항 6. 동양 철학**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진', ㉡에 해당하는 용어는 '위'
-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고 보는 갑은 선한 선천적 도덕심인 사단을 확충하여 본래의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수양 방법을 주장한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고 보는 을은 성인이 제정한 예를 배워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예와 일체가 되는 수양 방법을 주장한다.

**문항 7. 동양 철학**

- 을에 의하면, ㉠이란 사심물욕을 제거하여 마음의 양지가 판별하고 결정한 것을 힘써 실천하여 양지의 지극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갑에 의하면, ㉡이란 사사물물의 실질에 즉하여 그것에 내재해 있는 이를 궁구하되 극진하게 하는 공부이다.
- 갑의 의하면, ㉡을 통해 이치를 알고, 그러한 앎을 미루어 극진히 하여 목적인 진지(앎의 극치)에 이르는 것이 ㉠과 ㉡의 관계이다. 을은 본래의 마음이 곧 이치이고, 마음 밖에 따로 이치가 없음에도, 갑이 이를 알지 못해 격물과 치지를 서로 다른 두 공부로 구분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본다.

**문항 8. 응용 윤리. 생명과 레건**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이익 고려', ㉡에 해당하는 용어는 '권리'
- 을이 주장하는 도덕적 지위의 기준은 내재적 가치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를 소유한 존재의 특징인 '삶의 주체성' 여부이다. 을의 관점에서 볼 때 갑의 입장은 유용성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동물을 존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피터 싱어
  - ① 공리주의 윤리학자로서 '동물 해방론'을 주장하고, 동물의 고통 받지 않을 권리와 동물의 복지를 인정
  - ② 쾌고 감수 능력 차원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 인정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도덕적
  - ③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에 근거하여 인간과 동일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을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종(種) 차별주의'라고 비판
  - ④ 모든 이익 관심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의 내용과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것은 아니며,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도 아니라고 봄 → 인간, 동물, 식물의 가치 위계 인정 → 동물 존중의 한계
- 레건
  - ① 삶의 주체는 단순히 살아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위자임
  - ② 최소한 1살 이상의 일부 포유류는 '자기의 삶을 사는데' 요구되는 자격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 동물은 고유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음
  - ③ 동물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그 삶의 주체임
  - ④ 인간과 동물은 자기 삶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삶의 주체인 인간과 동물의 삶의 주체로서의 도덕적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
  - ⑤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 동물은 도덕적 주체이며, 그러한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존중해야 함
  - ⑥ 모든 삶의 주체가 갖는 권리는 도덕적 권리이며 법적 권리는 아니므로 동물이 참정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보면 안 되고, 도덕적 권리는 본래적 가치를 갖는 개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임

**문항 9. 서양 철학. 고대 사상이 트라시마코스와 근대 사상이 칸트**

- ㉠에 해당하는 용어는 '나라의 이익' 혹은 '국익', ㉡에 해당하는 용어는 '선의지'
- ㉢에 해당하는 내용은 '너의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이다. 을은 거짓말을 허용하는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면, 약속과 약속의 목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금지한다.

**문항 10. 서양 철학. 고대 사상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 ㉠에 해당하는 용어는 '보조하는 부류', ㉡에 해당하는 용어는 '친애'
- ㉢에 해당하는 내용은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할지'이다.
- ㉣에 해당하는 내용은 '동등한 사람은 동등한 몫을 갖는 것'이다.

- 지혜 :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파악하여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혼의 힘(능력),
- 용기 :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인 보전 능력
- 절제 : 개인의 내적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 정의 :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문항 11. 정치사회 사상. 현대 사상이 롤스**

- ㉠에 해당하는 애용은 '모든 시민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과 이상에 비추어 합당하게 지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 ㉢에 해당하는 용어는 '중첩적 합의', ㉣에 해당하는 용어는 '판단의 부담'
- 합당한 다원주의는 형성되는 견해들 사이에 다양하고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롤스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정의감에 대한 능력'과 '선관에 대한 능력'이라는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고 이성의 능력을 통해 그 능력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롭다고 본다.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공적 정의관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적용하며 행동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공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조건에 기반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동하려는 자발적 의지이다. '선관에 대한 능력'은 자신의 합리적 이익이나 선관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 포괄적 교리란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정치적 영역에서도 행동 방식을 규제하는 원리를 가진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지배하는 체계화된 규범과 선의 이념을 말한다. 이러한 포괄적 교리의 다원성은 역사적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로운 제도가 성립할 경우 생겨나는 실천이성의 자연적 산물이다. 롤스는 현대 민주사회의 정치 문화가 지닌 이러한 사실을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 부른다. 하나의 포괄적인 교리는 억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국가 권력의 사용에 의해서만 지속적으로 합의되고 공유될 수 있다. 롤스는 이러한 사실을 '억압의 사실'이라고 부른다.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시민들이 이성의 힘을 사용하여 충분히 자유로운 토론을 하더라도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판단들에 대해 모두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이다. 롤스는 이를 '판단의 부담'이라 지칭한다.
- 정치적 정의관은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 간의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첩적 합의는 상이한 포괄적 교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합의이다. 따라서 중첩적 합의는 최소한의 합의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합의란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협력의 조건이 되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합의이다. 요컨대 중첩적 합의의 초점은 정치적 정의관이다.
- 정치 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의거할 때에만 가장 적절하다. 헌법의 본질적 요건은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시민이 공통적인 인간 이성이 수용할 수 있는 원칙과 이상에 비추어 합당하게 지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자유주의의 원칙들이다. 모든 시민이 합당하게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치적 정의관만이 공적 이성과 정당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